

지 상 법 석

깨달음의 열매 익어가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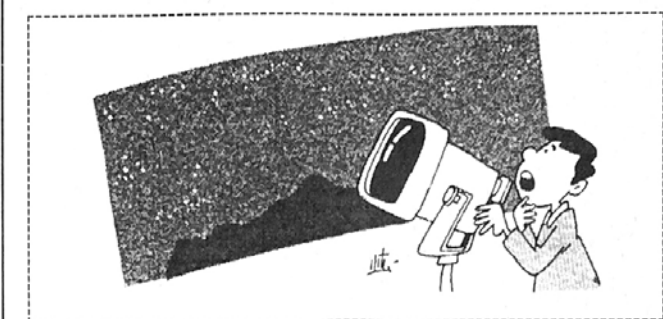
“물질이 너무 풍부하면 공부가 안돼요
배가 부르니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
부처님이 왜 결식했나를 알아야 합니다”

따를 수가 없지요.
옛날 스님들은 서울에 들어 가려면 한
일년 머리 기르고 솔잎 상투를 틀고 들어
갔어요. 옛날 어느 스님이 솔잎 상투를 틀
고 4대문 중의 어느 한 대문을 막 들어 가
려고 하는데 문밖에 있던 어떤 탄 스님이
그분을 알아보고 할 얘기가 있어 불러야
했는데, “이렇게 스님”하면 정체가 드러날
테니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얼핏 생각나서
소리친 것이 “종광사만리(縱廣四萬里)”라
했다 잠깐요.

연소연 유점사 월정사 건봉사 등 강원지역
3개 본사에서 보낸 학인 30명이 공부하도록
되어 있었어요. 원래 한 1년씩 공부하러는
건데 유점사엔 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난 2
년을 넘게 살았지요. 처음엔 범망경을 읽으
라 합니다. 그러곤 금강경을 공부했지요.
그때 상원사에선 한암스님이 (화엄경)을
강연하셨어요. 탄허스님도 거기서 배웠지
요. 그땐 책이 없었으니 아침마다 조그만
방에 빙 둘러앉아 탄허스님이 그 전날 토
를 달고 연구해서 새기는 것을 대중은 듣
는 거지요.
아침 5시에 공양을 하고 7시쯤 대중이
한 자리에 모이면 탄허스님이 경전구절을
차례로 새겨주셨어요. 혹 의심나는 내용이

어요. 그러던중 지금은 고인이 된 이종익박
사가 일본 경도의 가네자와 문고에서 (화
엄경절요)를 베껴 송광사로 보냈다는 소문
을 듣고 송광사로 달려갔지요. 그것이 인연
이 돼 화엄경을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것
이 교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랄 수 있지
요.
당시 화엄경절요를 일일이 베껴 다시 한
암스님께 가서 토를 달고 공부했었어요.
여름엔 농사 짓고, 또 주지라고 일보러
다니다보니 겨울에만 토를 다는데 토다는
데만 한 이태 걸렸지요.
토를 달고 그걸 갖다 줄까 말까 하다 누
가 보나 마한가지다 싶어 여지껏 그걸 가
지고 있다가 몇년전에 그걸 영인해 돌리고

집깎습니다.
글쎄, 깨달았다고들 하는데 무엇을 알았
는지... 아무튼 선을 잘만 하면 그게 얼마
나 좋아요. 그러나 지금 사람은 근기(根機)
가 생각 밖으로 얕은것 같아요. 생각한 것
을 끝까지 밀어 부치는 지속성이 부족해
요...
옛 스님은 법문 하나 틀으려고 천리길을
마다하지 않고 밭도 굽고 한 데에서 자연
서까지 가서 심심(信心)으로 물으니 공부
가 되었지요. 신심하나 갖고 나니 탄 생각
이 날 턱도 없지요.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
“부처가 무엇입니까?” 하고 물으니 “마삼
근(麻三斤)”이라 대답했다고 하는 얘기도
있었습니다.
아, 그렇게 간절한 의심덩어리를 기어
올수 있을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찻마디에
딱 막히니 참상이 되지. 지금 사람은 그럴
민지 않아요. 차 타고 봉 가서 화두 하나 일
러주시고 해서 ‘마삼근’ 하는데 무슨 의심
이 있었습니까.
“신심이 심분 있으면 의심이 심분 있고,
의심이 심분 있으면 깨달음이 심분 있다
(信有十分 疑有十分, 疑有十分 悟有十分)”
고 했는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은 신심이
2~3분이나 되는 것 같아. 믿음이 없으니



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는 약 1백억광년
부처님 250년전 이미 은하계 존재 밝혀
이것이 현대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삼
천대천세계이다. 아직까지 우리는 얼마
만큼의 별이 존재하는지, 그리고 보이는
별 이외에 또한 안 보이는 물질이 우주
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.
그러므로 삼천대천세계와 현대과학이
이해하는 세계의 별의 수를 비교하는 것
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쨌건 이
두 세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
크다는 면에서는 일치한다.
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
라는 세계상이 현대 과학이 파악하고 있
는 우주관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, 불교
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숫자가 크게
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.
오히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파
불교의 실용론적 사유 방식의 일면에 접
근하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아무런 관
측 기구도 없던 2500년 전에, 보통 사람
이 들으면 허황되게 짝이 없는 듯한 세
계상이 설해졌고, 그 세계상은 첨단
관측 기구를 동원한 현대 과학에 와서야
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
태양을 비롯하여 약 3천억 개의 별이 휘
감긴 원반 모형의 배열로 배치되어 있는
것으로 추산된다. 그리고 별과 별 사이
의 평균 거리는 대략 5광년이다. 우리는

‘이거다 저거다’ 분별 말고 큰 돌이 닳듯이 공부해야

옛적에 사미계 받을 때는 이 말을 일러
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요.
가로 세로가 4인리나 되는 돌이 있는데
백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 과객의 가사 꼬리
에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1갈인데
계를 받을 때는 누구에게나 “네가 이
계를 받고 과계하게 되면 이 종광사만리
돌에 떨어져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져야 나
울 수 있다”고 일러 주었던 것이지요.
내가 살아온 옛 이야기를 참고 삼아 해
볼까요.
산중지산(山中之山)이라, 대동강 상류의
맹산이란 곳이 내 고향입니다. 이름 만큼이
나 산세가 웅장하지요. 옛날엔 절석문이라 불
렸어요. 그런 산골에 나서 거기서 죽지 않고
이렇게 뛰쳐 나오게 다행이지요. 우리
집안은 농사꾼 집안이었는데 나는 겨우 보
통학교(국민학교)를 다녔을 뿐입니다. 1리
나 떨어진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.
출가는 그러니까 23살때 금강산에서 했
지요. 유점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스님으
로 모시고 중이 되었어요.
당시 금강산 유점사에는 열불방 선방 강
당이 다 있었어요. 연화사가 열불방이었고
수월당이 강원이었고 그랬습니다. 대중스
님은 한 30명 남짓되었던 것으로 기억나요.
당시 오대산 상원사엔 ‘승려수련소’가 있
었습니다. 군대로 치면 훈련소격이지. 이 수

있으면 물고 그 물음에 한암스님이 답을
해주곤 했지요. 바로 봐도 모르는데 거꾸로
놓은 책을 보고 새기는 것을 대중은 듣는
데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.
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화엄경인데 책이
없어서 중국에 주문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.
책 하나 놓고 빙 둘러앉아 역시 탄허스님
이 새기고 우리는 듣는데, 망상이 날 때는
그것도 못듣고 그저 일심으로 들어야 듣는
거지요.
그 당시에 나같은 젊은 사람은 (화엄경)
염송 책을 갖지는 못했지요. 큰 절이나 그
책이 있는 정도였으니까요. 개인적으로는
큰스님들이 더러 갖고 있었던 형편이었고
우리는 감히 달라고 부탁하지도 못했지요.
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모두
돌아가신 것 같군요...
그땐 선지식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리만
들으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갔어요. 교통
이나 좋았나. 늘 걸어야다녔지. 아마 걸어서
남북한을 두바퀴는 돌았을 겁니다. 한바퀴
도는데 한 10년 걸리거든요.
당시는 남방의 지리산, 동방의 금강산,
서방의 구월산, 북방의 묘향산이라고 해서
이곳 4산에 방부를 쓴 수좌라야 알아주었
습니다. 이곳을 빼놓지 않고 다니신 분은
과계사의 고승스님과 나 뿐일거예요.
오대산에서 공부를 마치고 선방을 돌아
다니다 보니 강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

“옛스님은 법문하나 들으려고
천리길 마다않고 노상침묵하며
신심으로 물으니 공부가 되었지요
신심없는 화두는 바로 死句입니다”

있어요. 한암스님이 후학을 위해 토를 달아
놓은 것인데, 나는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알
아요.
옛날 젊은 스님들은 참선하려고 결망지
고 다녔지만 요즘 젊은 스님들은 학교를
많이 가는 것 같아요. 학교 다니면 학문을
해도 수행을 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
너무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군요. 선·교
가 조화를 이뤄야 해요.
시대가 멀어질수록 선과 교를 겸비하도
록 제자를 가르쳐야 해요. 또 선의 깨달음
이라는 것도 경에서 밝힌 여실지견(如實之
見)과 맞는가를 살펴 인가해야 합니다. 그
렇지 않으면 자구 법의 중심에 혼란이 생

의심이 없을 것이고, 의심이 없으니 깨달음
이 있겠소. 그러나 신심을 크게 내야해요.
큰 신심이 큰 의심을 부르고 그 의심이 열
매같이 무르익어 ‘탁’ 터질때가 바로 한소
식이 오는 순간 아니겠어요.
다만 신심을 투철히 해야해요. 신심이 없
는 의심은 소용이 없어. 신심이 없는 화두
는 바로 사구(死句)라. 화두를 일러주는 사
람도 문제요. 화두를 내리는데 ‘어째 무
엇이라 했는가’ 하거든. ‘어째’가 왜 나오
나. 그냥 ‘무엇인가’ 해야지.
조주스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하고 조주스
님께 직접 화두를 받아야 해요.
모두 공연한 소리야. 부디 잘 닦아요...

현대불교
생광광고
본 립은
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
꾸며지는 생광광고입니다.
최소의 비용, 최대의 효과
현대불교 생광광고관에서
찾으십시오.

활천당 한약방
(대구 약한약) 중년
한약의 명소
40년 전통
간염 간경화증
상담 요할
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86-1
(053-252-8274)

법회경 강좌
강사 최공덕 스님
문의전화
부상: 645-6224
대구: 952-8711

운주사
• 종로구 청진동 6번지
• TEL (02) 720-9372~3
• FAX (02) 723-0646

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
(사찰명, 사진 등 삽입 가능)
단주, 합장주, 목걸이, 팔찌,
차걸이, 주부, 열쇠고리 등
한남상사
Tel: 02)795-4083, Fax: 02)792-9659

승도인쇄 스티커 전문
불심과 공익정신으로
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
문의처: (02)273-1239
대표 이 강 화 합장

한민족
정통 신선도 수련법
회원모집: 수시접수
(지방수련장 상담 환영)
수련과정: 단전호흡법, 철산법, 신선기공
36동작, 생식법, 벽곡법, 토굴
에서 생활하는 법, 단식법
문의전화: (02)735-6795 · 6796
팩스 (02)730-9298
서울 종로구 인사동 4-2 증원 B/D 4층
한국 신선도 협회
회장 이해창

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
■ 木材放火劑 (화재예방용)
■ 木材활열방지제 (갈리짐 변색)
■ 木材방충·방부제
■ 木材탈취제 (청변균제거)
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
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-11
유봉B/D (을지로 2가)
전화: (02)266-2629, 404-9521 팩스: (02)266-2679

참불자, 도반을 모십니다
불교에 관계된 일이나, 포교당으로 쓰실 분에 한해
아래 건물을 임대해 드리고자 합니다.
건물주소 서울시 중구로 부암동 218-2호
대지 70평 (지하 1층, 지상 4층
건물 40평) (현대식 건물)
공간 사용은 사용자가 선택하실
수 있습니다.
문의처 (02) 745-2511
395-9193
369-2560 (주인 직접 상담)

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...
한글반
년2회 실시
4월·8월
회원모집중
국고 졸업과정 한글반·재수생·직장인·주부반
중학 졸업과정 ○ 쉽게 풀이된 핵심 「강의해설교재」
○ 학교수업실 「강의 녹음」 학습
고교 졸업과정 ○ 철저한 1:1 「담당 관리제」
대학 졸업과정 ○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
72세 할머니가 본
제도를 이용하여 2년
만에 중졸·고졸과정을
거뜰히 마쳤습니다.
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
대한교육평기원
우 110-410 서울 중구로 인의동 해운헌인정빌딩 2층 213호
상담전화 (비밀보장)
(저녁 9:00까지 접수) 02)766-9090

특전: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
95년전원졸업목표 (영·수) 「비밀」정답지
한자합 학습관리 전화접수 (비밀보장 PM 9:00)
기프(영·수)가 학원 문을 휘날려도 해설집 제공
신영희(72세, 할머니) : 중·고과정(24개월)
박순희(45세, 주부) : 중과정(5개월)
이상수(39세, 직장인) : 중·고·대과정(36개월)
최경일(남, 27세) 드림